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제1독서 말라 3,1-4

화답송 시편 24(23),7.8.9.10(◎10ㄴㄷ)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입니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제2독서 히브 2,14-18

복음 환호송 루카 2,32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22-40 또는 2,22-32

영성체송 루카 2,30-31 참조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순교 사적지
갈곡리 성당



경기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466번길 25

관할
갈곡리 성당 031-959-1208

침이 많은 골짜기라는 우리말로 '칠울'의 한자 이름인 갈곡리는, 우고리 신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몇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해 생겨난 교우촌이다. 1890년대에 형성되었고, 1898년 공식 보고서에 공소에서 성사가 처음 집전된 기록과 1918년 워털 주교가 직접 사목방문을 한 기록이 나타난다.

갈곡리는 송도(개성), 신암리, 행주, 덕정리, 의정부, 법원리 본당의 공소를 거쳐 2018년, 공소설립 120년 만에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한국전쟁의 순교자인 김치호 베네딕토 신부와 김정숙 마리아나 수녀 남매가 갈곡리 출신이고,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갈곡리에서 나고 자란 신앙의 산실이다. 1955년에 미군의 도움으로 지어진 성전이 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신자가 직접 치는 삼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주님 봉헌 축일



이학민 안드레아 신부
평내동 부주임

평내 성당에서 하느님과 신자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학민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모든 교구 신자분들께 하느님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간을 되뇌어 보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를 서품 성구로 삼아, 주님께 봉헌된 사제가 된지 일년하고 꼭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삶에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제 영을 받아달라고 떼서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성모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사건 이전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모님이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는 마음과,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은 마음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내어준 사랑의 봉헌물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자신의 것을 서로에게 내어 줄 수 있을까요?



본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미사 강론 끝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을 전합니다. 애들이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로 뽀죌하고 당황하던 시간을 거쳐, 차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가 변해가며,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에게 내어 놓은 최고의 봉헌물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역시 사랑의 마음을 되돌려 드리는 은총 가득한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



2020 의정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2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6전시홀
주례 이기헌 베드로 주교

cpbc 가톨릭평화방송 서품식 중계 : 2/5(수) 오후 2시 생방송 / 재방송: 밤 10시 30분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착한 목자로 하느님께서 뽑으신 우리 교구의 여덟 명의 부제가 사제품을, 일곱 명의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선언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을 착한 목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이 열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들이 참으로 착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가득한
서품식에 함께 하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제단 일동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사제품



문주석 레오

첫미사 양주백석 성당
2/9(주일) 10시 30분



박성호 베드로

첫미사 후곡 성당
2/9(주일) 11시



오정석 라이문도

첫미사 광적 성당
2/9(주일) 11시



정영빈 가브리엘

첫미사 덕소 성당
2/9(주일) 11시



전솔이 안토니오

첫미사 후곡 성당
2/9(주일) 11시



홍승한 요셉

첫미사 후곡 성당
2/9(주일) 11시



박준 야고보

첫미사 고읍동 성당
2/9(주일) 10시 30분



백상렬 스테파노

첫미사 송산 성당
2/9(주일) 11시

부제품



김지수 아우구스티노
일산 성당



김일현 요셉
대화동 성당



김윤찬 프란치스코
녹양동 성당



김정호 미카엘
행신2동 성당



진영진 세례자요한
주교좌 의정부 성당



김현균 야고보
고읍동 성당



윤성흠 베르노
구리 성당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구리 부주임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교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교회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그리스도의 성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교회 헌장에 따르면,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습니다(1항).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교회가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헌장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으며 또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5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면 고통받는 이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보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불가능해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확인하는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목 헌장 1항은 교회와 세상 간의 연대,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과의 연대를 선포합니다.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고통과 마주하는 교회

어떠한 공동체이건 그 정체성에 혼동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49항) ☸

어린이부 레크림 “씨밀레”

‘씨밀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의정부교구 어린이부 레크림으로, 지도 신부님인 윤관영 시몬 신부님과 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밀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끼와 능력을 발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사목국에서 주최하는 레크림 창작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노래들로 여름캠프와 대림성탄 레크림 연주 안무를 만들고, 주일학교 행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본당 소속 교사 또는 퇴임한 교사 가운데 교구 어린이부 레크림에서 함께 활동할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사전에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 <http://naver.me/G6ZJcokL>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를 향하여

성 야고보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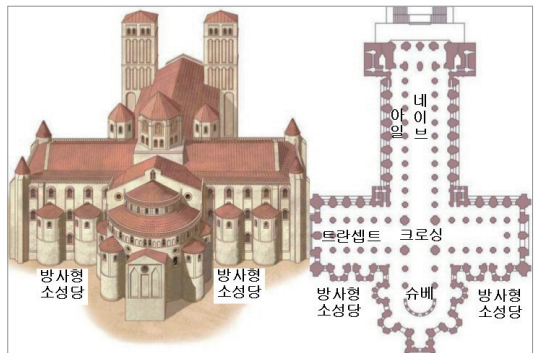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초기 로마네스크 시기에 '성지 순례'는 신앙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로마 성지 순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 신앙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순례지는 사도 성 야고보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뿐이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순례길이 유럽 전역에 생겨났습니다. 특히 로마네스크 성당이 발달하던 시기에, 프랑스에는 네 가지 순례길이 형성되었는데, 그 길목마다 중요한 순례 성당들이 건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순례 성당으로 투르의 성 마르티노 대성당, 리모주의 생마르시알 수도원 성당, 콩크의 생트푸아 수도원 성당, 툴루즈의 생세르냥 대성당, 베즐레의 생트마리마들렌 대성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순례 성당들은 규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례라는 특성 때문인지 어느 정도 공통된 요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로마네스크 양식의 바탕 위에 순례를 위한 변형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브는 3랑식 혹은 5랑식을 취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트란셉트도 3랑식의 형태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네이브의 아일과 슈베(제단 쪽의 앱스와 소성당 부분)의 방사형 소성당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순례자들은 하루를 걷고 그날의 순례를 마무리하고 자 마을의 성당에 들어옵니다. 이때 성당은 하루 순례의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성당에 들어온 순례자는 자연스럽게 아일을 따라서 성당을 한바퀴 돌게 됩니다. 아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트란셉트를 만나게 되는

데, 3랑식 트란셉트는 순례자를 자연스럽게 슈베의 방사형 소성당으로 이끌어 주어 그곳에 모셔진 성인들의 유물(성유물) 앞에 서게 해줍니다. 그렇게 슈베를 다 돌고나면 반대편의 3랑식 트란셉트를 만나게 되고 이어서 네이브의 아일을 따라서 성당 입구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순례 성당은 성당을 한바퀴 순례할 수 있는 순환 동선을 구성함으로써 순례자들이 하루의 순례를 봉헌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성당의 1078-1122 당시 복원도

우리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순례지 성당의 전례 시간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위의 평면 형태를 갖는 순례 성당에서는 전례 거행 중에도 순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곧, “아일 - 3랑식 트란셉트 - 슈베의 방사형 소성당 - 3랑식 트란셉트 - 아일”로 이어지는 순환 동선을 따라가면 순례자는 자연스럽게 순례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 성당들의 연이음 끝에는 항상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의 성 야고보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 야고보 대성당은 프랑스의 순례 성당들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네이브를 구성하는 기둥과 벽체들이 가늘고 그림으로써 채광 면적이 확대되어 실내가 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순례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신심 깊은 건축가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



교구장 동 정

2월	3(월)	11시	수품예정자 서약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14시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회의
	4(화)	10:30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회의
	5(수)	14시	사제,부제 서품식 - 킨텍스 제2전시장 6전시홀



교구 소식

민족화해위원회 - 2월 평화사도 월례미사

일시 2/3(월) 19시~21시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미사 강주석 신부
내용 찬양, 영상물, 미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젊은이를 위한 인문학 피정

일시 2/15(토) 15시~16(주일) 13시
대상 19세~39세(기혼자 포함)
피정비 4만 원(교재_개인 구입)
준비물 개인 컵, 필기류, 세면도구, 따뜻한 옷

장소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인원 선착순 40명
교재 대화에 대하여(시어도어 젤딘 지음), 어크로스
문의 031-850-1446(선교사목국)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2/22(토) 19시
신청 <https://bit.ly/2FD9LzI> (무료)

장소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문의 010-3642-3574

2020 상반기 본당 민족화해분과 간담회(민족화해분과장 및 위원)

일시 2/22(토) 13:30~18시
신청기한 ~2/11(화) (참가비: 1인, 5천 원)

장소 신앙교육원(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문의 031-941-6235~6

제19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2/28(금) 19시~3/1(주일) 17시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http://cafe.naver.com/ujbee>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신앙의 길 제11기 도보순례단 모집

일정 2/29~4/18 (4/11 제외한 매주 토요일)
참가비 8만청년 참가비 50% 지원

신청 교구홈페이지 참조
모집 2/10(월)까지 선착순 마감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20 DMZ 평화의 길

기간 3/26(목)~29(일), 3박4일 / 장소 파주-연천 구간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 주관 민족화해센터

대상 초6학년 이상 누구나 (총100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15만 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나무그늘> 사진 공모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순간 /이야기가 있는 목주 /나의 기도공간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기도회 필라피정

일시: 2/10(월) 10시~15:40/미사 포함
강의/미사: 김연상 비오(3.4지구 담당 사제)
장소: 주교좌 성당 대성전
문의: 010-3790-0496

청년사순피정 청년들의 네가지 사순이야기

일시: 2/28~3/1(2박3일), 6만 원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강화피정의집 20명
문의: 010-8082-6955 리차드 수사

씨튼 예비부부주말 피정(예비부부 및 신혼 2년 미만)

일시: 3/13(금) 19시~15(일) 16시(2박3일)
장소: 서울씨튼영성센터 www.setonsc.com
문의: 02-744-9825

8지구 영성피정 /금촌 성당(파견미사)

일시: 2/4(화) 12:30~16:30
문의: 010-3495-8522
강사: 김경희 루시아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2/15(토) 15시~16(일) 16시 ※선착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 이하)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 010-9746-1585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일시: 2/27~29, 3/5~8, 3/11~13, 3/17~19,
3/23~26 /문의: 064-796-9181

살레시오회 종교등부 겨울성소피정

대상: 예비 중1~예비 고2 /일시: 2/22~23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여의대방로65)
문의: 010-7427-4627, 010-3894-1332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 쉬은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 /이재상 신부
일시: 2/7(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가정선교회 <찬양과 회복 피정>

일시: 2/9(일) 09:30~13:30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첫시간-고영민 단장과 손현희 약기팀의 찬양, 둘째시간-이현주 회장 강의 및 내적치유 기도, 셋째시간-한철호 신부 미사와 강론
고백성사 09시~10시
문의: 010-6281-8626, 010-4077-3954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상 피정

일시: 매주(화)
장소:파티마평화의 성당 031-952-6324
내용: 10시 기도, 11시 강의, 14시 미사, 점심제공

제4차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일시,장소: 3/14(토)~15(일), 의왕시 아른의집
주제: 돌을 치워라(요한 11,39)
지도: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주최: 미국 중남부 봉사자 협의회/ 하찬사(하느님을 찬양하는사람들)
문의: 010-2855-9082, 010-3319-9082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올레 트레킹(아래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2/7~9(한라산), 2/13~15, 2/22~24(한라산), 3/4~7(추자도), 3/9~12(추자도), 3/14~17(한라산)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3월 피정

겨울침묵피정: 2/11(화)~13(목)
월피정: 2/8(토), 3/14(토) 10:30~16:20
문의: 02-990-1004



교육 · 모집 ▶▶

<나무그늘> 문화의 트랙을 여러분의 글로 꾸며주세요

<문화의 트랙>에서는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교우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북음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순례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원고는 <문화의 트랙> 코너에 소개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분량: 10포인트 A4용지 1장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이메일만 접수)
신난다 첫영성체 교재 교사 연수
일시: 2/9(일) 09:30~16:30
장소: 서울 까리파스 방배 복지관
문의: 010-3193-3348
생활성서사 홈페이지 참조

커피바리스타교육 (사)허령/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 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교육
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2/7(금)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의정부행복한책읽기기초반모집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의 성숙
기간: 2/13~7/9(10회, 목요일 오전)
회비: 12만 원(교재 별도)

장소: 의정부 교구청 지하 대강의실
문의: 장그라시아 수녀 010-9016-7003

시스피나음악원 화원모집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주1회)

한국교회사아카데미 7기 신입생 모집

교과목: 박해시대 교회사, 근현대 교회사, 중
국교회사, 북한교회사, 건축사, 예술사, 순교
영성사 등 /강사진: 노길명, 변진홍, 장정란,
서종태, 김정숙, 김정신, 윤진 등
수업일자: 3/3 개강, 매주 화(18:30~21:20)
15주 강의 /접수: 1/7~2/21
문의: 070-8672-0327(새남터성지 안내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해외선교) 관심자모임

일시: 2/9(일) 14~17시
대상: 만23세~만39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1번출구)
문의: 010-3817-0567, www.columban.or.kr

상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 과정 (10주)
일시: 3/14~5/23 /매주(토)09시~18시
국가자격취득 과정 (300시간)
일시: 3/14~11/14 /매주(토)09시~18시
장소: 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대회의실
참고: <http://cafe.daum.net/sangjang2014> 게시판
문의: 031-874-6272 팩스: 031-837-0144

가톨릭학창단 2020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지휘: 최호영 신부 /대상: 20~40대 남녀교우
오디션: 2/15(토) 15시.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문의: 010-6227-8377

은평성모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20~59세 심신이 건강한 남, 녀
봉사주기: 주 1회 이상(봉사 요일 선택 가능)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02-2030-4296 (호스피스 센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채용분야: 청소년활동지도
 접수일: 2/21(금), 17시30분 까지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아카데미 모집

접수 및 등록: 1/28(화)~2/28(금)까지
 3개월 수업(3월,4월,5월)
 대상: 연령 무관,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과, 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양상블(남·여 그레고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기타) 등
 장소: 교회음악대학원(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site>

CPE 불학기 교육생 모집

임상사목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는 영적돌봄전문가 양성프로그램입니다.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 배움터(파주시 한빛로 21)
 기간: 8주간 금요일(3/6~5/1, 9:30~17:30)
 회비: 45만 원(중식비 포함)
 신청: 010-3460-2075(8명 선착순)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3월 개강)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수) 19:30~21:15, 권오면 신부
 영신수련 식별규범 이해와 실천적 적용
 매주(목) 10시~12시, 권오면 신부
 영성신학-기초에서 심화까지
 매주(금) 14시~16시, 정인숙 박사
 행복한 '뽕가정'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셋째(금) 14시~16시, 손엘디, 배카타리나 부부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가발성교실 『성가놀이터』 안내

예수마리합창단과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발성도 배우는 『성가놀이터』
 일시: 매월1,3주(화) 19:30(2/4개강)
 장소: 서울가톨릭교회음악대학원 1층
 주최: 예수마리합창단/ 강사: 김호정 교수
 대상: 가톨릭신자누구나 /참가비: 매월 3만 원
 문의: 단장 심준보베드로 010-5245-2848

타우영성심리상담소(문의: 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 관계&성격)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 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학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2020년 봄학기 수강생 모집

평생학습의 요람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2020년 봄학기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제
 1) 심리학 평일과정: 총장 명의 학사학위
 2) 심리학 주말과정: 총장 명의 학사학위
 3) 경영학, 사회복지학 주말과정(토/일/월) 교육부장관 명의 학사학위
 전문교육/자격증과정: 전례전례꽃꽂이과정/지적인 대화를 위한 교양 클래식 /김아라 배우 아카데미
 개강: 3/2(월) /문의: 02-705-8718
 홈페이지 <http://scec.sogang.ac.kr>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타악기, 금관악기
 일시 2월 16일(일) 오후 12시30분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일산 탄현동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오디션곡은 자유곡)
 문의 010-3642-3574

안내 · 기타 ▶▶

정신분석 및 영성상담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성직자, 수도자,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장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성북구동선동)
 문의: 02-926-4261, 010-4261-1113(차영미수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3/12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 원~
 3/17 동부유럽 12일 359만 원
 3/17 터키 그리스 13일 389만 원
 3/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 원

가톨릭대학교 예수성심성당 혼인예식

웨딩 상담 문의: 아라마크 010-3362-5401
가톨릭 여행사 010-5235-3533
 4/20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15만 원
 4/20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375만 원
 4/21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25만 원
 5/18 터키 그리스 12일 38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27, 4/20, 5/6 299만 원
 이태리 일주 9일 3/12 279만 원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 299만 원
 베트남 다낭 5일 3/27 129만 원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곰나무' 여름 캠프

일시: 8/10(월)~12(수) 삼정부여유스타운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50명
 참가비: 8만 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에서 4만 원 지원) 문의: 02-2268-7103
 홈페이지: www.pmsk.net

제주 성지 순례 3일

일시: 2/26~28, 3/20~22, 3/24~26, 4/3~5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890
 해외순례: 4월 16일 다낭성지순례 5일
 순례자를 위한 제주 렌터카&숙박 예약가능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골프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 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 원
 4/13 이태리 일주 12일 370만 원
 5/25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28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2/29(토) 2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만 75세 미만)
 특징: 해외한달살기 /학비일부지원사업
 문의: 광주청소년수련원, 070-4365-7297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둘째 주(토) 15시~주일 13시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2/9(주일)	성체 선교 콜라라 수녀회 대전 본원	010-8683-6848

10 영성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성과 영적 성숙

김동규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느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톨릭 교의와 영성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비허’(필립 2,6-11, Kenosis)와 ‘육화’를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갈라 4,6; 로마 8,15)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제2차 니체아 공의회, 325년)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지닌 참으로 하느님이시요 이성적 영혼과 육신을 지닌 참 인간이시다 죄를 빼고는 우리와 모든 것에서 같으시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다”(칼체돈 공의회, 451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470항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체 안에서나 영혼 안에서 모두 삼위의 신적 삶을 인간적으로 드러내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영혼이 육체를 매개로 하느님과 연결되므로, “육체는 구원의 연결고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소홀히 해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모든 신학은 영원한 인간학이고 인간은 하느님에 관하여 생각하기 위해 반드시 인간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별』의 저자인 루프니크(M. I. Rupnik)는 영성생활이 인간의 심리와 영성의 경계선 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교부 오리게네스가 말했듯, 우리의 마음, 기질, 성격, 육체와 이성, 오감, 본성에서 일어나는 체험의 과정으로 삼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신명 2,5)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터득해야 합니다.

로올라의 이냐시오는 이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인성을 취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관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 아우구스티노가 하느님을 여기저기서 찾던 끝에 드디어 자신 안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교백록』제10권 27장 참조), ‘자아성찰’을 해야 합니다. 자아인식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복음의 거울에 비추어 예수님을 묵상하고,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타인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이란 예수님의 인성을 묵상하며 자신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기 위한 적합한 소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본성을 거룩한 덕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윤리적, 정서적, 영적 성숙을 포괄하는 전인격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